어른 뺨치는 범죄…통제불능 10대들

죄의식 보다 과시욕
또래 폭행하고 영상 SNS 올려
고민없이 범죄
보이스피싱 알고도 범행 가담
성폭력 무감각
술 먹여 집단성폭행한 뒤 방치
광주 올 5대범죄 소년병 546명
특별범죄 예방교육 등 대책 시급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새벽, 전남지역 상가건물로 10대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지난달에도 피해자를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B(18)군 등 10대 3명이 같은 재판부로부터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동부경찰은 같은 학교 여학생을 마구 때리고 폭행 영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공동폭행)로 C(14)양 등 중학교 3학년생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C양 등은 지난 18일 광주시 동구 한 건물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때리고 폭력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어른들 못지 않은 10대 청소년들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거친 욕설과 혐오 발언, 무면허·음주운전, 또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뿐 아니라 절도·강도, 성폭력 범행, 보이스피싱 등 온갖 종류의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 시기의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를 저질러 붙잡힌 소년범은 1536명에 이른다. 특히 강도(27명) 범행을 저지른 소년범은 전년도(9명)보다 3배나 늘었고 살인(3명)을 저지른 10대도 붙잡혔다.

올해도 10대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내놓은 '5대 범죄 소년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5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거된 소년범은 5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8명)에 견줘 11.9%나 증가했다.

살인·강도 범죄는 줄었지만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18명으로 전년도(12명)보다 50% 증가했고 절도(57.7%) 범죄도 늘었다. 전체 범죄로 확대할 경우 올 들어 934명이 붙잡혀 전년도(783명)보다 19.3%가 늘어나는 등 10대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범행도 갈수록 흉포·잔혹화하고 다양해지는가 하면, 수법도 지능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최근 경찰에 또래 여학생을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는 여중생들이 SNS에 올린 영상에는 피해자를 때리며 조롱하고 웃는 모습이 담겼다.

남부경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붙잡힌 고교 3학년 학생(17)은 간단한 심부름으로 수십만원의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전국을 돌며 'XX캐피탈 직원입니다'라고 말하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1억 7800만원을 받아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넸다. 재미삼아 게임하듯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가 하면,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피해자가 숨진 범행도 10대들이 저질렀다.

성폭력 범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자료를 통해 소년 강력범죄 중 성폭력범죄 비율(51.1%·2008년)이 10년 만인 2017년에는 89.0%까지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스마트폰,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관련 정보 제공량이 늘어나는데다, 청소년의 그릇된 성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성폭력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성폭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년범 재범 비율이 늘어나는 점도 주목해야한다. 형사정책연구원이 파악한 소년범죄자 재범(4범 이상) 비율은 지난 2008년 7%에서 10년 뒤인 2017년에는 14.1%까지 치솟았다.

광주지방경찰청도 이같은 점을 감안, 최근 교육청과 학교폭력 예방협의회를 개최, 소년범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와 간담회를 갖고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매월 청소년 범죄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정례화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159곳을 대상으로 특별 범죄 예방교육도 진행키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쿠팡발 코로나19 확산에…광주·전남 학교 '살얼음판'

자가진단 등교 중지 820명
진단검사 등 방역 초비상
확진자 나올 땐 3차 등교 영향

'코로나19'가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을 기점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일선 학교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자칫 확진자가 나온다면 학교가 폐쇄돼 학사일정이 지연되고, 다음달 3일로 예정된 3차 등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차 등교수업 첫날인 지난 27일 등교 학생 중 코로나19 의심증세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은 광주 180명, 전남 58명으로 총 238명에 달했다. 이중 18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52명은 검사 중이다.

등교 전 학생건강 상태 자가진단에서도 등교 중지 안내를 받은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고,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인원도 증가한 상황이다.

전날 코로나19 건강 상태 자가진단에서 등교 중지 판정을 받은 초1·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학생은 광주 383명·전남 437명 등 모두 820명(0.5%)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도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을 나이스(NEIS) 설문조사 시스템과 SNS(URL)를 연계한 '학생 건강 상태 자가진단'으로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가진단은 발열 여부와 기침·인후통·호흡곤란·설사·메스꺼움 등 증상 여부, 14일 이내 해외여행 여부, 동거가족의 최근 14일간 해외여행 여부,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자 여부 등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자가진단 응답 내용에 따라 '등교 가능'과 '등교 중지' 안내문을 자동으로 알 수 있다.

해당 설문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등교나 출근이 금지된다. 다만, 이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확산세가 심각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이 많아지는 만큼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무인택배함 방역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28일 광주 북구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지역생활방역단원들이 지역 한 아파트의 무인택배함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뇌물 받아 군수에 전달한 공무원 해임 정당"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중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28일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적법한 처분'이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는 형법 제 3자 뇌물취득죄에 해당한다"며 "'제 3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뇌물을 받은 경우'도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은 것에 포함돼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A씨 행위는 파면에 준하는 비위 행위"라며 "A씨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 파면보다 낮은 해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관내업체 대표들이 가져다주는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 보성군수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했을 뿐 업체들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6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업자들로부터 이용부 당시 보성군수에게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4억 1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제3자뇌물취득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전남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바탕으로 한 보성군의 해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A씨 후임이었던 B씨도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보성군수에게 전달할 뇌물로 2억2500만원을 받아 제 3자 뇌물취득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강등' 징계를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놓고

서진건설-광주시 소송전 본격 시작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광주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28일 오후 지법 203호 민사 중법정에서 열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우선, 양측의 청구 취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향후 증거·증인 신청 등을 포함한 일정을 조율했다.

재판부는 향후 양측 변론을 통해 광주시가 내린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 매 물 건

의료시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